

한 번 웃어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성림 스님 (통도사 한주)

생각 낸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생각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그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마련이다. 통도사 시탑전에 가면 남다른 씨앗을 뿌리고 그 발아를 기다리는 성림 스님을 만날 수 있다. 스님의 씨앗은 오다가다 일으키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매일 아침 통도사 각 전각마다 참배하며 오랜 시간 가꾸어온 간절한 발원이다. 오늘과 내일이 이어지고, 현재와 내생이 이어지는 거대한 순환을 따라 이어가고 있는 스님의 발원이 막 피어나는 5월의 신록처럼 세상을 물들이는 날이 머지않아 오리다.

성림 스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출가했다. 1955년 흥경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니 50여년을 절에서 지낸 셈이다. 어린 시절에는 당대의 큰스님들을 사봉했다. 염불과 글씨에 능했던 은사 흥경 스님을 비롯, 효봉 스님, 구하 스님, 경봉 스님, 향곡 스님, 동산 스님, 성철 스님, 구산 스님 등 당대의 큰 스님을 사봉하며 공부했다.

이렇게 많은 큰스님들을 모시며 자랐지만 성림 스님이 마음속 깊이 수행자의 표상으로 간직하고 있는 스님은 정작 유명한 큰스님이 아니라 지리산 자락에서 이름 없이 살다간 노스님이다.

"1970년대 후반에 화엄사 봉천암 선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스님의 은사였습니다. 그 스님의 입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수가 77세였던 그 스님은 평생을 토굴에서 수행 했는데 일체의 약이나 죽을 거부하고 물만 드시며 가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무리할 준비가 다 되셨다며 더운 물에 목욕을 하신 후 가사 장삼을 수하시고 기대 앉으셔서 유언을 남기고는 좌탈입망하셨죠. 또한 평생 모아온 듯, 50만원 정도의 돈을 내놓으면서서 화장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은 아랫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사주라고 하시더군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이 <열반경>에 설명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노스님은 머리 다비에 쓸 나무를 모아놓은 것은 물론, 죽으면 3시간 후 입은 그대로 곧바로 화장을 하고, 사리를 수습하거나 탑을 세우거나 비석을 세우지도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화장을 하는 동안 경음이 났고, 스님의 시신이 타고 난 곳을 살펴보니 전체가 수백과의 사리였다고 성림 스님은 회고했다. 탑을 세우지 말라는 스님의 유언이 있었지만 사리를 계곡에 그대로 버릴 수가 없어 간단히 돌탑을 조성하고 그곳을 떠나왔다고 했다. 당시를 회고하며 성림 스님은 "수많은 스님들의 입적을 지켜봤지만 금강산에서 출가했다는 그 노스님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스님들이 행으로 직접 보여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처럼 말잔치로 그치지 않았어요. 큰스님들이 대중과 똑 같이 울력을 하고 백장청구를 그대로 실천했죠. 언행일치가 기본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사찰이나 스님들이 너무 사회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님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이 크게 잘못돼 있다고 했다. 공부만 하는 로봇을 만들어놓았지 인성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계 역시 스님들이 포교를 잘못해서 폭폭한 불자들은 많은데 실연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전부입니다. 공부하는 로봇이 된 아이들만 있어요. 옆의 사람 상관없이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식입니다. 사찰도 사회와 똑 같이 흐르고 있어요.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잘못 흘러가면 것이 쉽게 바로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원력이 있고,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주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스님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바로잡는 길이 부처님 가르침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개공성불도(偕共成佛道)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 더불어 같이 부처가 되자는 것입니다. 나만 부처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 보시, 방생 사상, 화쟁, 중도 사상 속에 인류를 구하고 우리나라를 구할 길이 있다 말입니다." 현실을 진단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으며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말도 빨라진다.

"유바라미를 실천해야 합니다. 유바라미의 첫째 덕목이 보시입니다. 보시는 곧 베푸는 말입니다. 베풀어야 뭐든지 이루어집니다. 재물이든 마음이든 베풀어야 합니다. 웃음을 지어보이는 것도, 또 의롭고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는 것도 다 보시입니다. 또 우리 집안만 닦고 쓸 것이 아니라, 대문 앞을 쓸고 우리 집 담 밖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집 바깥이 깨끗하면 지나는 사람이 즐거워집니다. 담 밖을 청소하는 것은 단순히 집 앞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실천해보십시오. 상없이 하는 보시는 은행이자의 백만배, 천만배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중생구제를 하는 것도 결국은 베푸는 것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염불, 강경, 주력, 참선 어느 것 하나라도 스

“

나만이 아닌 모두가 부처 되어야
자비 중도 등엔 인류 구할 길 있어
집 밖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보시
일상생활 하면서도 정진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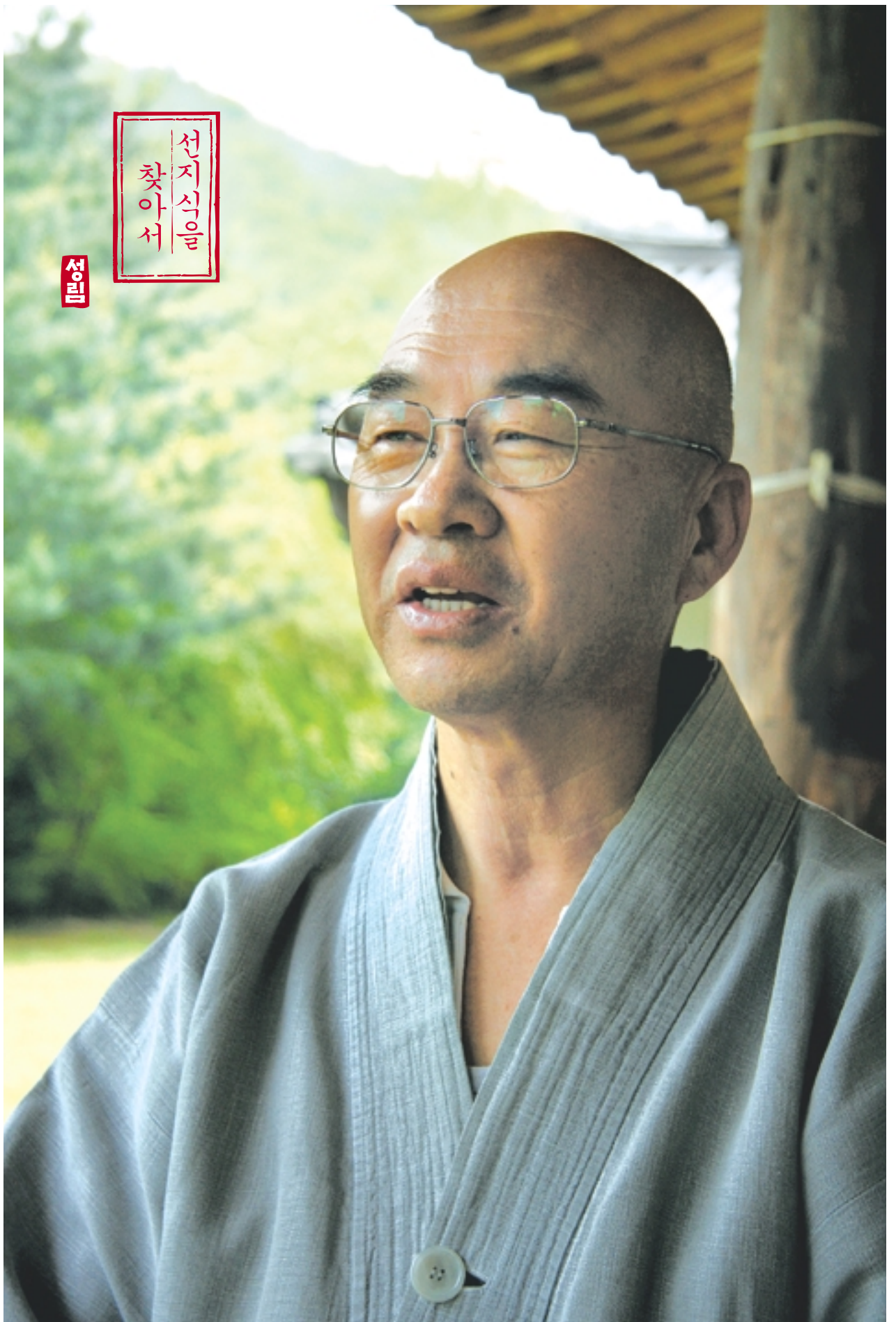
스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따라 꾸준히, 지극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종교는 믿어라,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부처님 가르침대로 처신을 하면 부처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에 관계가 없습니다. 업에 따라 근기가 다르니 근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지극하게 하면 구경에는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불교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는 믿지 않으면 실천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님에게 수행법은 차별이 없다. 간화선이 부처님의 혈맥을 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경, 염불, 주력, 참선 어느 것 하나라도 스스로에게 맞는 것을 지극하게 하거나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젊은 시절, 참선도 하고 경전 공부도 했던 스님이지만 요즘은 염불 수행을 하고 있다.

"염불은 주위 사람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염불 삼매를 얻으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염불 삼매에 들면 나와 관련된 문제 뿐 아니라 내 부모형제와 이웃들의 문제도 생각 내는 대로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삼매를 얻은 사람은 나만 잘되는 게 아니라 남도 더불어 잘 되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염불은 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졸음이 오고 잠생각이 나니까 소리를 내는 염불을 하기도 하지만 앉으나 서나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스님의 발원은 아주 구체적이다. 각 전각에 들어서면 불법홍포



선지식을
찾아서
성림



성림 스님은 1942년 평양에서 태어나 양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스님은 1965년 사미계를 수지한 후 선암사 강사, 조계종 연수포교부장, 범어사 교무, 재무, 통도사 총무국장, 고운사 주지, 직무대행, 부산시 북구 불교연합회 회장,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등의 소임을 두루 지냈다. 스님은 마음속에 새워놓은 원력에 집중된 일상을 산다. 나머지는 생략한다. 인도 9년, 중국 9년을 비롯 세계 70~80개국을 두루 다니며 경험을 쌓았다는 스님은 이제 불법홍포라는 거대한 원력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머지를 과감하게 생략한 단출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글·사진=천미희기자

2006 대한민국 여성출판물 우수상을 수상한 책 (한국일보)
2006 베스트 미노베리언 기업&브랜드 선정(스포츠투데이)
매일형 웰빙간식 및 건강식품

MASTERPIECE OF THE WELLBEING COLLECTION
아주 특별한 선물
마·그·토·린

다가오는 5월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리는 효도, 보은, 감사,
사랑의 선물을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로 준비하세요
이제, 소중한 분께 건강을 먼저 선물하세요!

Magtorin Jewelry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는 스테인레스 (또는 신주) 안쪽에 페라이트 자기장을 첨가하고
유리온이 생성되는 포로마린 실리코네를 결합한 후 원적외선 에너지를 코팅한
아이디어 퓨전 웰빙 제품으로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코디하기가 쉽다.

단체 주문시 로고 혹은 이니셜 색인 가능
단, 로고는 1000원 이상 주문시만 가능하며, 양은 1000개 이상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마그토린을 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품 사이즈-남(어)-
S : 17.5cm(16.5cm)
M : 18.5cm(17.5cm)
L : 19.5cm(18.5cm)
주문시 사이즈 선택

평범 구성
특별 구성

www.magtorin.com

MT 204T ₩86,000
MTB 207G ₩98,000
MT 203G ₩79,000
MTB 206T ₩98,000
MT 205G ₩86,000

제조 및 판매: 서원SNKO | 제품문의: 02-568-1117 | 국민은행: 443101-01-057676(예금주:최인경)